

##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및 학교 적응에 따른 아동의 우울성향

이 영 미\*(천안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전임강사)

민 하 영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전임강사)

학령기 아동은 심리적으로나 인지적으로 아직 미숙하고 발달하는 과정에 있지만 더 넓은 사회와 접촉하고 다양한 요구와 과제에 직면한 가운데 우울, 불안 및 좌절 등의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연구는 아동들이 경험하는 우울 성향에 관련된 요인을 규명하고자 초등학교 6학년 아동 386명을 대상으로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학교적응, 우울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지를 구성하고 자기보고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동이 부모의 양육행동을 지지적이고 온정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아동의 우울성향이 약화되며, 아동이 학교생활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학교 적응을 잘 할수록 우울성향이 낮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학교적응과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우울성향에 대해 상호작용 효과가 있어서 학교적응 수준에 따라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적응과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우울을 53%까지 설명해주며 그 중에서도 특히 학교적응이 아동의 우울성향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임을 밝혔다.